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대장균, 연구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미국, 대장균, 연구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미국 농무성의 연구 분야 투자, 대장균 방어로 성과를 얻다”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농무성의 연구 분야 투자, 대장균 방어로 성과를 얻다

미국 농무성의 2,500만 달러 프로젝트가 ‘공중위생의 위험을 감소’라는 기존의 목표를 고수하며 일곱 번째 해를 맞이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향상된 유독성 대장균 검출 및 박멸 기술을 개발해 낸 바 있다. 2011년부터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금까지 18개 연구 단체 소속의 과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의 투자는 이미 77개의 학술지를 위한 데이터를 도출해냈다. 이 중에서는 소고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쉬가 독소를 생산해 내는 대장균(STEC: Shiga toxin producing E. coli, 이하 STEC로 칭함)’ 중 박멸과 관련한 데이터도 있다.

“연구결과는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식중독 및 이와 관련된 생산성 손실로 인한 비용뿐 만 아니라 식품 회수, 브랜드 평판 하락 및 사업실패로 인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국립 식품농업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국가 프로그램의 리더인 이사벨 월스(Isabel Walls)는 전했다.

목솔리와 캔사스주립대(Kansas State University), 네브래스카(Nebraska),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in New Mexico), 보스턴의 다나 파버 암 센터(Dana Farber Cancer Institute in Boston)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소와 소고기에서 발견되는 대장균의 유독물질을 재빨리 감지해 내기 위해 유전과학과 면역학적 과학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과 시약은 사람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식품 회수나 질병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해에 기대되는 연구성과에는 연구진의 테스트 내용을 상업화하여 기업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미국에서 수입식품이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와 정보 발신, 식품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 식품에 따른 질병 발병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입식품관련 발병이 3건이었던 반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연평균 18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한국산 역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비위생 등의 문제로 작년 한해 29건의 식품이 통관 거부를 당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의 안전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당국 역시 수입 식품 검사를 강화, 리콜 및 통관 거부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철저한 식품 자가 검사와 생산시설 위생 강화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